

국제 학술교류

1996년 5월 춘계학술대회에 중국 전염병학회 명예회장인 田庚善, 부회장 斯崇文, 북경의 대 미생물학 교수 方亮이 참석하여 '중국 전염병의 개관'과 'Human IL-2 gene transfer & expression inhibits HBV and enhances cytotoxicity of PBMC'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에 학회에서는 답방의 형식으로 1996년 11월 14-19일 중국 무한에서 열린 중국전염병학회에 회장단(박승철, 최강원, 강문원, 김준명, 이영석)이 참석하여 '한국에서의 바이러스 성 간염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두 단체는 상호방문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간에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심포지움 형식의 학술교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1996년 11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 일본 감염증학회 회장인 Kyorin 의대 Hiroyuki Kobayashi 교수를 초청하여 'Pathogenetic role of bacterial biofilms and its control, especially in airway biofilm disease'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가졌다.

1997년 7월 중국 북경의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한·중의학 학술대회에 이호왕, 박승철, 최강원, 강문원, 김준명, 이평우, 우준희 등의 임원단이 참석하여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이란 주제로 중국측 관련 학자들과 심포지움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Vaccine development of HFRS in Korea'의 7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1997년 10월 일본 감염증학회 차기회장인 St. Marianna 의대의 Jingoro Shimada 교수가

학회를 방문하여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향후 일본과의 정기적인 학술교류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1997년 11월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개최된 제 4차 아세아 태평양 의학바이러스 학술대회(APCMV)에 최강원, 김준명, 이환중, 손영모, 김의중 등이 'HIV/AIDS'와 'Respiratory viruses' 주제의 session을 맡아 진행하였다.

1999년 3월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감염증학회 학술대회에 전 회장인 최강원 교수와 강문원 회장이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으며, 향후 일본감염증학회와의 학술교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1년, 2003년, 2005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아시아 태평양 감염재단 (이사장 : 성균관의대 송재훈 교수) 이 주관하는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ISAAR)' 의 공식 후원학회로 참가하고 있다.

2002년 3월 International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ISID) 와의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싱가포르 ISID에 국제교류부장이 참석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중국 및 일본 감염학회, 아시아 지역의 감염학회와의 교류 추진을 시도하였다.